



라오스전 멀티골 기성용·손흥민 “이 느낌 EPL까지”

스완지시티 기성용 22일
토트넘 손흥민 23일 출격

기성용



라오스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공격봉능을 깨운 '손사인' 손흥민(토트넘)이 소속팀에서도 부활포를 준비하고 있다.

손흥민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은 23일 오전 1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웨스트햄과 2015-2016 EPL 1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6주간의 원발(축저근막) 부상 뒤 골을 넣지 못한 손흥민은 지난 17일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6차전 라오스전에 선발 출전, 2골을 몰아넣으며 완전한 부활을 알렸다.

손흥민은 부상 복귀전이었던 6일 2015-2016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안더레흐트(벨기에)전에서 결승골을 어시스트하고 12일 월드컵 예선 미얀마전에서 2골을 도운 데 이어 완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라오스전의 멀티골은 EPL로 복귀하는 손흥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손흥민은 지난 9월 라오스와의 월드컵 예선 2차전에서 자신의 A매치 첫 해트트릭을 성공하며 팀의 8-0 대승을 이끈 뒤 토트넘에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다.

이번 라오스전 멀티골로 자신감을 회복한 손흥민에게 웨스트햄전은 홈팬들 앞에서 자신의 부활을 알릴 좋은 기회인 셈이다.



손흥민

손흥민과 함께 라오스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기성용의 스완지시티는 22일 0시 본머스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있다.

지난 시즌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골 타이 기록인 8골로 활약했지만 이번 시즌 아직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기성용 역시 자신의 첫 A매치 멀티골의 기운을 리그 경기에서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이밖에 미얀마전에서 '찰떡 공학'을 선보이며 골을 합작했던 구자철과 지동원은 소속팀인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를 위해 담금질하고 있다. 라오스전에서 왼쪽 측면을 해집고 다닌 박주호의 도르트문트는 함부르크와 일전을 벌인다.

- ◇ 해외파 주말경기 일정(한국시간)
- ▲ 21일(토) 함부르크-도르트문트(박주호 원정·04시30분) 미들즈브러-퀸스파크레인저스(윤석영 원정·04시45분) 슈투트가르트-아우크스부르크(구자철 지동원 홍정호 원정) 프랑크푸르트-레버쿠젠(류승우 원정·이상 23시30분)
- ▲ 22일(일) 스완지시티-본머스(기성용 홈·0시) 헤르타베를린-호펜하임(김진수 원정·23시30분)
- ▲ 23일(월) 토트넘-웨스트햄(손흥민 홈·01시) /연합뉴스

광주 FC, 울산 잡아야 하는 3가지 이유

- ①창단 최초 최다승 10승 '-1'
- ②1승1무6패 열세 '천적' 깨야
- ③안방 승리 3번 뿐...홈팬 위해

22일 홈서 K리그 클래식 37R

광주 FC가 한계를 뛰어넘어 최다승 고지로 간다.

프로축구 광주 FC가 오는 22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 현대와의 2015 K리그 클래식 37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지난 3월7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2015시즌이 종착지에 다다르고 있다. 광주에게 남은 경기는 '2'. 클래식 잔류라는 목표는 이뤄지만 아직 광주에는 이루고 싶은 꿈이 남아있다. 팀의 역대 최다승인 9승을 넘어 10승으로 가는 것이다.

광주는 넘고 싶은 울산을 상대로 최다승 기록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앞선 전남 드래곤즈와의 시즌 마지막 '엘로 더비'에서 1-2패를 당하는 등 클래식 잔류 확정 이후 치른 최근 두 경기에서 1무1패를 기록하고 있다. 또 홈에서 열린 최근 4경기에서 2무2패를 남기는데 그쳤다. 승리에 목마른 광주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다.

울산은 최근 2연승과 함께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강적이다. 무서운 기세로 하위 스플릿을 누비고 있는데다 광주와의 승부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통산전적에서 울산은 6승1무1패를 기

록하면서 광주의 천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광주는 지난 7월11일 원정길에서 김호남의 결승골로 울산전 첫 승의 감격을 누렸지만,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도 1승2패로 열세를 보였다.

광주는 울산과의 경기 이후 28일 대전과의 홈경기를 끝으로 올 시즌 일정을 마감한다. 남은 두 경기에서 두 자릿수 승수를 채우고 싶은 광주는 홈 부진도 만회하고 싶다. 광주는 올 시즌 17번의 홈경기에서 3승6무8패, 승률 35.3%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홈팬들에게 3차락배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지 못했다. 안방에서의 승리, 울산을 상대로 한 승리라면 더 의미가 있다.

앞선 전적을 따져도 객관적인 전력을 봐도 광주의 열세다. 여기에 주축 선수들의 공백도 크게 느껴진다. 수비수 안영규가 경고누적으로 벤치를 지켜야 한다. 여기에 중원을 책임져온 이찬동은 발목 뺏조각 제거수술을 받으면서 그라운드에서 설 수 없다. 광주는 올 시즌을 안정감 있게 끌어왔던 두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울산의 막강한 화력을 상대해야 한다.

광주가 조직력과 집중력으로 울산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팀의 최다승 역사를 새로 쓰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FIFA 징계' 이승우, 수원FC 훈련 합류

국제축구연맹(FIFA)의 제재로 당분간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 B팀에 머물 수 없게 된 이승우(17)가 귀국, 프로축구 K리그 수원FC의 훈련에 합류했다.

이승우는 첼렌지(2부리그) 일정을 소화 중인 수원FC의 훈련일정을 그대로 함께 하는 동시에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파견된 코치와 함께 별도훈련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합류는 이승우 측이 초등학교 시절 은사인 조덕제 감독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이승우는 첼레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에 출전 후 스페인으로 귀국했다가 FIFA 징계로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앞서 FIFA는 바르셀로나가 18세 미만



선수들의 외국 이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승우와 장경희 등 외국 출신 청소년 선수의 출전 금지 등의 벌칙을 내렸다. 또 이승우가 만 18세가 되는 내년 1월

6월까지 클럽 경기에 출전하고 훈련하는 것은 물론 클럽 아카데미인 '라 마시아'에 머무는 것도 금지했다.

이승우는 징계가 끝나는 시기에 맞춘다 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복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삼성 라이온즈 파크 막바지 공사 2016년 삼성 라이온즈의 새로운 구장인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19일 오전 막바지 공사에 접어들며 새 주인을 맞이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K리그 클래식 2연패' 전북 현대 내일 시상식

이번 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 우승하며 2연패를 달성한 전북 현대가 오는 21일 우승컵을 들어올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날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 성남FC와의 경기 직후 전북에 대한 우승 시상식이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우승팀 전북에는 우승 트로피와 메달, 우승 상금 5억원이 수여된다. 한편, 이날 경기에는 최근 방송에서 인기를 끄는 전북 이도훈의 막내 아들 대박이(이시안)가 경

기장을 찾아 그라운드에서 매치 볼을 심판진에게 전달한다. 전북은 또 이날 K리그 구단 중 처음으로 2016년 새 유니폼도 공개한다. 올 시즌 관중 2위인 전북은 이번 마지막 홈 경기에서 2만3천873명이 경기를 찾으면서 시즌 관중 1위도 달성하게 된다.

수도권 연고 구단이 아닌 지역 구단에서 관중 1위를 달성한 것은 2003년 대전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후반기 평균자책점 0.75...아리에타 NL '사이영상'

시카고 컵스의 우완 투수 제이크 아리에타(29)가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최고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을 받았다. 아리에타는 19일(한국시간)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투표에서 1위 표 30표 중 17표를 얻는 등 총 169점을 획득,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잭 그레이키(147점)와 클레이턴 커쇼(101점)를 따돌리고

사이영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컵스 소속 선수가 사이영상을 받은 것은 퍼커슨 켄킨스(1971년), 브루스 수터(1979년), 릭 서트클리프(1984년), 그렉 매덕스(1992년)에 이어 아리에타가 다섯 번째다. 아리에타 개인에게는 첫 사이영상 수상이다. 아리에타는 올 시즌 22승 6패에 평균자



책점 1.77을 기록했다. 올 시즌 다승 부문 1위에 오른 아리에타가 시즌 평균자책점(1.66) 1위 그레이키를 제칠 수 있었던 이유는 후반기의 엄청난 활약 덕분이다. 아리에타는 후반기에 평균자책점 0.75를 찍으며 올스타 휴식기가 생긴 1933년 이후 가장 좋은 기록

을 세웠다. 특히 정규시즌 마지막 9경기에서는 평균자책점 0.27에 피안타율 0.132라는 믿기 어려운 상승세로 컵스를 포스트 시즌 무대에 올려놨다.

2002년 랜디 존슨 이후 13년 만의 한 시즌 300타점진을 달성한 커쇼도 자신의 4번째 사이영상 수상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성적을 남겼지만 5년 연속 마지막 후보 3인에 포함될 것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